

초현실주의의 특성과 작가연구

살바도르 달리, 르네 마그리트, M. C에셔를 중심으로

Characteristics of Surrealism and Study of Authors

Centered on Salvador Dalí, René Magritte, M. C. Escher

주 저 자 : 김영진 (Kim, Young Jin) 개인연구자
ppprint@naver.com

Abstract

Surrealism is an artistic movement that breaks the boundaries of reality, exploring the unconscious and repressed realities to inspire new forms of creativity and imagination in art. Emerging in the early 20th century, surrealism significantly influenced not only the visual arts but also a wide range of media including film, advertising, and literature. In particular, René Magritte's use of objet and dépaysement techniques conveyed powerful messages through irrational and enigmatic expression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urrealist worldview and artistic intentions of three representative artists Salvador Dalí, René Magritte, and M.C. Escher by analyzing their major works, thereby offering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surrealist ideology. Based on a theoretical framework, the research investigates the artists' lives, worldviews, and works. Dalí, under the influence of Freudian psychoanalysis, explored the unconscious through dreamlike imagery and symbolic techniques, guiding viewers toward introspection. Magritte juxtaposed ordinary objects in surreal contexts to provoke visual puzzles that challenge logical thinking and encourage refle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ity and ideals. Escher utilized mathematical principles and geometric forms to depict illusions and impossible spaces, merging logic and fantasy to pose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unconscious and human existence.

Keyword

Surrealism(초현실주의), René Magritte(르네 마그리트), Salvador Dali(살바도르 달리)

요약

초현실주의는 현실의 경계를 허물고 무의식과 억제된 실재성을 탐구하며, 예술에 새로운 창의성과 상상력을 부여한 사조다. 20세기 초 출현하여 미술뿐 아니라 영화, 광고, 문학 등 다양한 매체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르네 마그리트의 오브제와 데페이즈망 기법은 비합리적이고 신비로운 표현으로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본 연구는 살바도르 달리, 르네 마그리트, M. C. 에셔의 주요 작품을 통해 이들의 무의식 세계와 예술적 의도를 분석하고 초현실주의의 사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각 작가의 생애, 세계관, 작품 분석을 포함한다. 달리는 프로이트의 영향 아래 꿈과 무의식을 몽환적 이미지와 상징으로 표현했으며, 관객이 내면을 성찰하도록 유도했다. 마그리트는 일상 사물을 비현실적 맥락에 배치해 시각적 퍼즐을 제공하고, 현실과 이상 사이의 성찰을 유도했다. 에셔는 수학적 원리와 기하학으로 착시와 불가능한 공간을 표현하며 논리와 환상을 결합해 무의식과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목차

1. 서론

2. 초현실주의 역사와 특징

- 2-1. 초현실주의 시대 배경
- 2-2. 초현실주의 표현법과 특징
- 2-3. 초현실주의와 예술

3. 초현실주의 작가 연구

- 3-1.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 분석
- 3-2.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 분석
- 3-3. M. C. 에셔의 작품 분석

4.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1. 서론

초현실주의(Surrealism)는 20세기 초 유럽에서 시작된 예술 운동으로, 상상력과 무의식을 중시하며 일상적 현실을 초월한 독창적인 예술 표현을 추구했다. 이 운동은 문학, 회화, 영화, 음악, 연극, 조각 등 예술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고, 인간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예술의 중심 소재로 삼았다. 초현실주의는 상징주의, 다다이즘 같은 전통적 예술과는 차별화된 표현 방식을 발전시키며 이후의 예술과 문화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쳤다.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충격과 산업화로 인한 사회 변화는 사람들에게 큰 혼란과 불안을 일으켰다. 프랑스에서는 앙드레 브르통에 의해 <초현실주의 선언>이 발표되면서 20세기 현대 미술에도 매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초현실주의자들은 근대성뿐만 아니라 지속성의 정복자와 같이 세상을 뒤흔들고 삶의 전환을 시도하였다.¹⁾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기존의 합리성과 논리 중심의 사고방식에 대한 회의가 팽배해졌고, 인간의 무의식과 꿈, 환상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²⁾

이렇듯, 초현실주의는 미술계에 큰 영향을 미친 예술 운동으로 무의식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정신분석학에서 다루는 꿈, 환상, 비논리적인 요소들을 예술 작품에 적극적으로 도입했다.³⁾ 그리고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은 이러한 프로이트의 이론에 영감을 받아, 무의식 속에 숨겨진 꿈, 환상, 망상 등을 통해 무의식 속에 숨겨진 욕망, 공포, 기억을 탐구하고 표현하고자 했다. 따라서 초현실주의에서 무의식은 창작의 원천이자 예술가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⁴⁾ 이와 함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무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술가들은 이성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무의식 속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과 상상력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정신분석학의 영향이 결합하여 초현실주의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초현실주의의 이상적 세계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 이러한 초현실주의는 기존의 질서와 기득권자들로부터 도움을 구하지 않으며 일련의 새로운 실천 방식을 만들고 실현하고자 하는 물결을 일으켰다. 초현실주의에서 예술은 이제 목적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生)의 놀라움과 신비성에 대한 의식을 창조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으며, 초현실주의는 예술의 범주에 속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상력이 유지된 살아 숨 쉬는 힘으로 간주하였다.⁶⁾ 그리고 초현실주의는 이중 이미지, 데페이즈망, 오토마티즘 등등 다양한 표현 기법을 통해 미술작품에 표현되었다.

초현실주의는 예술을 중심에 놓고 꿈과 환상의 세계를 현실로 끌어들이므로써 예술의 영역을 확장했다. 이러한 초현실주의는 미술뿐만 아니라 문학,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무의식에 대한 관심은 현대 심리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었다. 초현실주의는 단순히 예술 운동을 넘어,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한 탐구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사상적인 흐름으로 평가될 수 있다.⁷⁾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작품에서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분석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억압된 욕망과 감정이 존재하는 정신의 심층적인 영역으로 규정하고, 이는 꿈과 같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초현실주의자들은 프로이트의 이론에 영향을 받아 꿈과 환상의 이미지를 작품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의식의 표면 아래 숨겨진 인간 심리의 복잡성을 드러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은 초현실주의 작품에 내재된 개인적·집단적 무의식의 상징과 의미를 밝혀내고, 작가들의 창조적 표현을 통해 억압된 감정과 욕망이 어떻게 예술적 형태로 전환되는지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초현실주의자들이 사용한 오토마티즘과 데페이즈망 등 다

1) Shin, K. S, 'Surrealism', Dong-A Publishing Company, 1992

2) Lee, J. H, 'The Development and Present of Surrealist Film Aesthetics: Focusing on Luis Buñuel', Pusan National University Film Research Institute, 9(2), 2017, pp.209-238

3) Yoon, H. J. & Jeon, S. Y, 'A Study on the Paintings of Salvador Dali in the Paranoid Critical Method Period from a Psychoanalytic Perspective', Art Therapy Research 24(3), 2017, pp.631-651

4) Cho, H. J,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Everyday Mentalscapes Using the Automatism Effect',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Ph.D. Thesis, 2024

5) André Stanguennec, 『La Philosophie Romantique Allemande』, Un Philosophe Infini, Vrin, 2017

6) H. Read, 'Futurism, Dada, Surrealism', A Concise history of modernPainting, New York , Fredericka Prayer, Inc, 1964

7) Yoon, H. J. & Jeon, S. Y., Op. cit.

양한 기법은 프로이트가 강조한 무의식적 충동의 자유로운 표현을 추구하는 것으로, 무의식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자신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내면의 갈등과 억압된 욕망을 시각적 형태로 관찰하고, 개인과 사회의 무의식적 욕구가 어떻게 문화와 예술로 투영되는지 그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예술가인 살바도르 달리, 르네 마그리트, M. C에서 등의 대표작에서 표출되고 있는 초현실주의적, 무의식적 특징이 어떻게 반영되어 표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의도와 작품의 논점을 규명하여 초현실주의자들의 예술사상을 한층 깊고 종합적으로 이해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초현실주의 역사와 특징

2-1. 초현실주의 시대 배경

1920년 무렵,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중립국 스위스 취리히로 피난 갔던 예술가들이 속속 파리로 귀환하기 시작했던 배경은 이후 초현실주의가 태동하는 토대를 마련한 중요한 시기였다. 그들 가운데에는 취리히에서 다다(Dada)를 이끌던 트리스탕 차라(Tristan Tzara, 1896-1963)를 비롯한 다다이스트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파리에서는 이미 『문학(Littérature)』지를 창간한 앙드레 브르통, 루이 아라공(Louis Aragon, 1897-1982), 필립 수폴(Philippe Soupault, 1897-1990) 등 자생적 다다이스트들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들은 차라의 귀환을 일종의 ‘메시아적 사건’으로 여겼으나, 실제로 함께한 다다 활동은 무질서와 무의미한 모임으로 치달았고, 결국 차라와 파리 그룹 사이의 갈등은 날로 격화되었다.⁸⁾

브르통과 파리의 그룹은 다다이즘의 자유분방함과 무질서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지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들은 차라와 결별하고 1924년 「초현실주의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는 꿈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고 두 세계를 융합하고자 하는 초현실주의 미학을 제시한 결정적 사건이 되었으며, 곧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합류하면서 초현실주의가 단순한 문학적 현상을 넘어 종합 예술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어 1925년 열린 첫 초현실주의 전

사회를 통해 미술계에 영향력이 본격화되었고, 이는 작가들이 무의식과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주제와 표현 방식을 시도하도록 촉진하였다.

초현실주의는 1924년 앙드레 브르통의 선언을 기점으로 시작되어, 1930년대에 들어서 전시 활동을 통해 그 이론과 실천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초현실주의자들은 기존의 전시 방식을 해체하고 오브제 실험, 전시 공간의 혁신적 활용, 관객 참여의 유도 등을 통해 예술과 삶의 경계를 허무는 태도를 선보였다.⁹⁾ 이는 단순한 예술사조를 넘어 사회적·정치적 변혁을 지향하는 아방가르드 운동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2-2. 초현실주의 표현법과 특징

초현실주의 표현법과 특징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 그리고 전통적 예술관을 탈피하려는 예술가들의 지향에서 비롯되었다. 전쟁 이후 합리적 사고와 기존 가치관에 대한 회의가 팽배해지자 예술가들은 꿈과 무의식 세계에 주목하여 비합리적이고 파격적인 표현법을 적극적으로 탐구하였다. 또한, 프로이트의 심리학 이론이 초현실주의 작가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억압된 욕망이나 꿈을 무의식적으로 시각화하는 기법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일상적이고 익숙한 사물을 낯선 맥락에 놓거나 형태를 변화시켜 현실과 환상 간의 경계를 흐림으로써 관객이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했다.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표현법 중 첫 번째로 이중 이미지(double image)는 하나의 이미지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나 의미가 동시에 인식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¹⁰⁾ 초현실주의 미술가들은 현실과 환상이 겹쳐 보이는 시각적 착시 효과를 활용하여 꿈과 환각 속 무의식 세계를 표현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í)는 이 기법을 통해 현실과 비현실, 이성과 비이성의 경계를 허물며 관객들에게 깊은 사색을 요구하는 환상적이고 기묘한 이미지를 창조했다.¹¹⁾

9) Kang Kyung-seok,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surrealist movement seen as a major exhibition from 1933-1938', *Compendium of art*, 25(0), 2024. pp.153-182

10) Gao, M. Y. 'Study on the Expression of Depayement in Surrealism', Daej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Ph.D. Thesis, 2024

11) Cho, H. J., Op. cit.

8) Bruce Altshuler, 'The Avant-Garde in Exhibition' *New Art in the 20th Centu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p.116

두 번째, 데페이즈망(Dépaysement)은 일상적인 사물을 원래의 맥락에서 분리하여 이질적인 환경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보는 사람의 의식에 강력한 충격을 주고 기존의 합리성을 흔드는 효과를 유도하였다.¹²⁾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는 데페이즈망 기법을 통해 논리적 사고를 벗어나 관객이 일상적인 사물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끔 했다. 그의 작품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허물고, 관객에게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¹³⁾

세 번째, 오토마티즘(Automatism)은 작가의 의식적인 통제 없이 무의식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하는 기법이다(Cho, H., 2024).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이성을 배제하고 무의식 속의 숨겨진 욕망이나 불안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앙드레 마송(André Masson)은 오토마티즘 기법을 활용하여 빠르고 자유로운 선과 강렬한 색채를 통해 몽환적이면서 불안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하였다.

네 번째, 프로타주(Frotage)는 울퉁불퉁한 표면 위에 종이를 놓고 연필 등으로 문질러 질감을 옮기는 기법으로, 우연성을 강조하여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하는데 활용되었다(Gao, M., 2024). 막스 에른스트(Max Ernst)는 낡은 마룻바닥의 무늬에서 영감을 얻어 이 기법을 개발했으며, 기괴하고 몽환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인간과 자연, 기계와 생물의 경계를 허물었다.

다섯 번째, 변형(Transformation)은 사물이나 개념의 형태, 기능, 의미 등을 의도적으로 바꾸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방법이다.¹⁴⁾ 초현실주의자들은 이를 통해 현실의 논리를 벗어난 상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세계를 창조하였다. 막스 에른스트는 변형 기법을 사용해 사물의 형태를 바꾸는 것을 넘어, 현실을 뒤집고 관객들이 새로운 의미를 찾도록 유도하였다.

이 밖에도 포토몽타주(Photomontage)는 여러 사진을 결합하여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각적 효과를 창출하며 초현실주의 미술의 실험적 성격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였다.¹⁵⁾ 초현실주의의 다양한 표현

법은 결국 예술적 혁신과 현실 비판을 동시에 추구하는 예술적 실험이었다.

2-3. 초현실주의와 예술

초현실주의(Surrealism)는 20세기 초 유럽에서 시작된 예술 운동으로, 상상력과 무의식을 중시하며 인간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예술의 주요 소재로 삼았다.¹⁶⁾ 초현실주의자들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영향을 받아 꿈과 환상을 통해 억압된 욕망과 무의식적 공포, 기억을 예술 작품에 적극 표현하였다.¹⁷⁾ 초현실주의 미술은 무의식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주관적 무의식과 객관적 무의식으로 구분된다. 주관적 무의식 표현은 우연성이나 의식의 통제를 최소화하여 무의식 상태를 직접 드러내며, 작가는 철저히 무 의도적으로 작업에 임해야 한다.¹⁸⁾ 반면, 객관적 무의식 표현은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과 원형적 이미지를 철저한 의도 하에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객관적 무의식을 다룬 대표적 작가로는 M. C. 에셔, 르네 마그리트, 살바도르 달리가 있으며, 이들의 작품에서는 기법의 우연성보다는 전통적인 기법을 통해 이미지 자체의 명확한 전달이 중시된다. 그러나 현대 초현실주의 작품들은 형태적으로 초기의 작품들과 유사하지만, 그 창작 과정에서 철저한 계산과 의도성이 더욱 강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¹⁹⁾

객관적 무의식을 이용한 초현실주의 미술 작품들은 당시의 정신분석학과 게슈탈트의 요인 등과 같은 시지각 이론의 원리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들은 인간의 몽상이나 꿈과 같은 비현실적이며 비정형성을 띤 정신적인 뇌의 활동을 정신분석학과 시지각 이론에 근거하여 형상화했다.

시지각 이론은 인간이 개별 요소가 아닌 전체적이고 조직적인 구조로 환경을 지각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게슈탈트 형태심리학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불안정하거나 모호한 자극 속에서도 근접성, 유사성, 연속성, 폐쇄성,

12) Kim H. S., 'Eyes on Modern Art', Yeolhwadang, 1998

13) Kim, Y. A. & Kim, N. H., 'Analysis of Marten Baas's art furniture through surrealist expression techniques and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objects', Basic Design Studies, 22(4), 2021, pp. 85-98

14) Gao, M. Y., Op. cit.

15) Kim, Y. A. & Kim, N. H., Op. cit.

16) Yoon, H. J. & Jeon, S. Y. Op. cit.

17) Cho, H. J., Op. cit.

18) Park, W. Y., 'A Comparative Analysis Study of the Works of Salvador Dali and René Magritte through the Expression of the Unconscious', Art Psychotherapy Research, 16(3), 2020, pp.67-95.

19) Park, W. Y., Ibid.

전경과 배경 분리 등의 원리를 활용하여 스스로 의미 있는 구조와 규칙을 형성하는 자기조직화 경향을 지닌다. 또한 지각은 단순히 시각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역학적 긴장과 방향성을 포함하는 역동적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아르놀름(Rudolf Arnheim)은 형태의 표현이란 모든 지각이 방향성을 가진 역동적인 긴장 상태를 내포한다고 주장한다.

게슈탈트 형태심리학은 미술작품 분석에 적용됨으로써 예술과 심리학 간의 중요한 연결 지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작품 내 존재하는 독특한 시각적 불규칙성과 상징성을 게슈탈트 원리를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감상자의 심리적 반응과 인지적 과정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접근법은 예술적 표현을 인간의 무의식 및 인지 메커니즘과 연결하여 게슈탈트 형태심리학과 예술의 학제적 융합을 촉진하는 연구로 평가받을 수 있다.

특히 초현실주의 미술가들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이중 이미지나 왜상 등 시각적 착시 효과는 게슈탈트 시지각 이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살바도르 달리의 이중 이미지 표현이나 M. C. 에셔의 다차원적 가상공간 구현 등은 시지각 원리를 활용하여 감상자에게 강한 심리적·인지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나아가 이러한 시지각적 원리와 표현법은 오늘날 시를 활용한 창조 분야에서 정보이론적 측면으로도 확장되어, 현대 예술 창작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3. 초현실주의 작가 연구

초현실주의 회화는 두 가지 주된 방향으로 발전했다. 첫 번째 방향은 자유연상과 자동기술법을 사용한 비구상적 접근이었다. 이는 작가가 의식적 통제를 벗어나 내면의 이미지와 생각을 직접적으로 캔버스에 구현하는 방식으로, 앙드레 마송(André Masson, 1896-1987)이나 호안 미로(Joan Miró, 1893-1983) 같은 예술가들이 대표적이다. 또 다른 방향은 꿈에서 영감을 받아 비이성적이고 환상적인 내러티브를 구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으며, 이 방법은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í, 1904-1989),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1891-1976),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 1898-1967) 같은 작가들에 의해 주로 탐구되었다.²⁰⁾

이러한 초현실주의적 접근은 단순히 미술에만 국한

되지 않고 사진, 영화, 조각 등 다양한 예술 형태로 확장되었다. 특히 초현실주의 사진은 무의식적이고 몽환적인 이미지를 포착하여 기존의 사진술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다. 브르통은 이런 새로운 예술 형태들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무의식의 세계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다.

3-1.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 분석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í; 1904~1989)의 대표작 <기억의 지속>은 단순한 그림을 넘어, 시간과 기억에 대한 깊은 사색을 촉발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녹아내리는 시계라는 기괴하고도 매혹적인 이미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시간의 흐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삶과 죽음, 현실과 꿈의 경계를 넘나드는 몽환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그림 1] The Persistence of Memory(1931)²¹⁾

특히 녹아내리는 시계는 시간이 흐르는 것을 시계로 상징하는데, 이 시계가 녹아내리는 모습은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며, 인간의 기억 또한 흐릿해지고 변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녹아내리는 시계를 보며 시간이 유한하고, 기억은 흐릿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다. 달리는 비현실적인 이미지 속에서 꿈과

20) Kang Kyung-seok,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surrealist movement seen as a major exhibition from 1933-1938', Compendium of art, 25(0), 2024. pp.153-182

21) Singulart, 'The Persistence of Memory', (2025.04.02.)
<https://www.singulart.com/en/blog/2023/12/05/the-persistence-of-memory-by-salvador-da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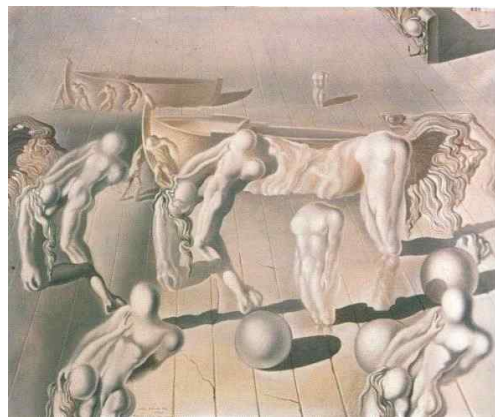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듯한 묘한 경험을 하게 하여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시계와 말과 같이 단순한 사물을 다른 관점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 깊이 있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예술이 얼마나 다양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느낄 수 있게 한다.

[그림 1]의 <기억의 지속>에 나타난 무의식의 세계를 분석해 보면 달리는 꿈속에서 경험하는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통해 무의식 속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과 공포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녹아내리는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객관적인 수치가 아닌, 주관적인 감각으로 표현한다. 개인마다 시간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고, 특히 기억 속의 시간은 더욱 유동적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에서 언급되는 시간의 왜곡을 떠올리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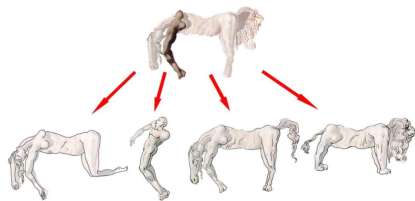
그리고 그림 속 배경은 황량하고 고독한 느낌을 주는데, 이는 인간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느끼는 고독과 소외감을 반영한다. 이는 무의식 속에 잠재된 불안과 공허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기괴한 그림 속 공간은 현실과는 다른, 꿈속에서나 가능한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이는 무의식 세계의 특징인 비논리성과 비합리성을 보여준다.

작품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자는 여자, 말, 사자>는 달리의 표현 방법 중 이중 이미지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블 이미지의 시각적인 구조를 그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더블 이미지에 포함된 각각의 개체의 묘사나 형태상의 특징을 어느 정도 희생할 수밖에 없다. 이 그림 역시, 하나하나 개체의 이미지는 상당히 불확실하다.

그러나 그 불확실성이 완전하지 않은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무의식적인 감각과 초현실적인 감각을 전달해 주기도 한다. 어떤 소재의 부분과 부분이 가지는 이중성, 삼중성 혹은 사중성의 가능성을 단서로, 형태로부터 얻어지는 착시를 이용한 표현에 의해 다원성을 가지게 된다. 달리의 이중 이미지는 게슈탈트 법칙을 사용하여 핵심 개념인 지각의 모호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림 2] Lion, cheval, dormeuse invisible(1930)²²⁾



[그림 3] Multi-image analysis in "Lion, cheval, dormeuse invis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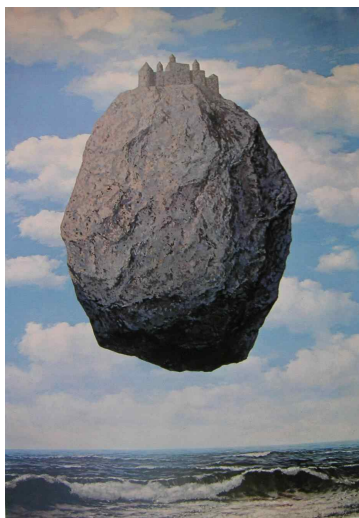
우리의 인식과 지각은 일반적으로 익숙한 형태일수록 인식률이 높다. 그 점에서 생각하면, 인간은 인간의 얼굴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감상자는 정보가 부족한 것에 의한 불안정한 형태를, 자신과 가장 밀접하고 자주 접하고 있는 물체와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다. 어린 아이와 달리 성인은 성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도 역시 인식률이 매우 높다.

[그림 2]는 표현된 여성의 얼굴과 에로티시즘을 느끼게 하는 가슴을 인식하는 순간에, 우리의 지각은 이미 얼굴과 가슴을 연결하는 목과 어깨, 팔, 그리고 몸통, 엉덩이, 다리 등을 차례차례로 순간적으로 인식해 버리게 된다. 우리의 뇌는 각 부분의 이미지에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해도, 혹은 완벽하지 않다고 해도, 비슷한 크기, 색감, 질감을 가진 소재를 연결해 완벽한 잠자는 여성의 형태로 조합해 버린다. 물론, 이 형태에는 잠자는 여성의 이미지를 성립시키기 위해 필요한 이미지 이외에도 다양한 이미지가 존재하지만, 최초의 인식

22) Centre Pompidou, 'Dormeuse, cheval, lion invisibles', (2025.04.04.) <https://www.centrepompidou.fr/fr/ressources/oeuvre/c6gyMz>

단계에서는 여성을 만드는 요소 이외의 불필요한 요소를 상 배경의 원리에 따라 배경으로 보내 여성의 이미지를 성립시키는 요소만을 그룹화하여 인식하고 있다.

[그림 3]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자는 여자, 말, 사자>에 나타난 무의식의 세계를 분석해 보면 달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현실과 무의식 세계를 넘나드는 몽환적인 이미지를 통해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작품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인물들은 '보이지 않는' 상태로 묘사된다. 이는 현실 세계에서 인지할 수 없는 무의식 속 욕망이나 기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잠자는 여자는 무의식, 즉 잠재된 욕망과 감정을 상징한다. 동시에, 여성은 달리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로써, 성적 욕망과 숭배의 대상을 의미하기도 하다. 여기서 말은 자유와 욕망을 상징하는 동물이며, 달리의 작품에서 말은 종종 인간의 억눌린 욕망을 표현하는 매개체로 사용된다. 사자는 힘과 권력, 그리고 숨겨진 공격성을 상징한다. 달리는 사자를 통해 인간 내면의 어두운 측면을 드러내 고자 했다.



[그림 4] The Castle of the Pyrenees(1959)²³⁾

3-2.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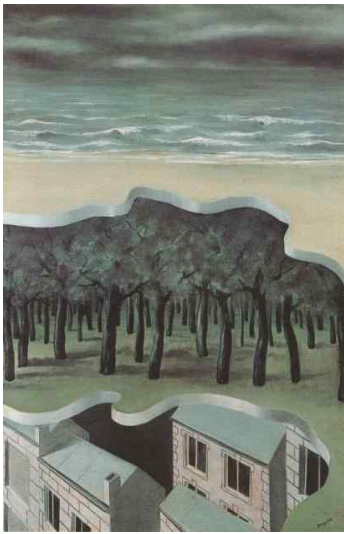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 1898~1967)의 대표작인 <피레네의 성>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

드는 독특한 이미지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하늘에 떠 있는 거대한 바위 위에 고립된 성이라는 기이한 풍경은 단순한 풍경화를 넘어, 우리의 무의식 속 깊은 곳을 탐험하는 듯한 깊은 울림을 준다. 물론, 하늘에서 수직 낙하하는 바위의 떨어지는 순간의 찰나를 잡은 사진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엔 너무 고요한 느낌이 든다. 이 작품에 쓰인 초현실주의적 상상의 방법은 무거운 것은 떠 있지 못하다는 발상에서의 전환이다.

그것도 아주 무거운 것으로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 배경도 임팩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둡고 무거운 보이는 바위와 대조적인 매우 맑고 따듯해 보이는 하늘을 사용하고 있다. 해변의 거친 파도가 위의 거대한 바위의 존재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 파도는 하늘과 바위 사이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파도가 그려지지 않았다면 저 커다란 성이 세워져 있는 바위의 크기가 해석하는 사람의 재량에 맡겨지게 된다. 파도를 그려줌으로써 저 바위의 규모를 설명해 주고 있다.

<피레네의 성>에 나타난 무의식의 세계를 분석해 보면, 일반적으로 바위는 땅에 붙어있고, 성은 땅 위에 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칙이지만 마그리트는 이러한 자연법칙을 뒤집어 하늘에 떠 있는 바위 위에 성을 배치함으로써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그림 4]. 이는 우리의 꿈속에서 종종 경험하는 비논리적인 상황과 유사하며, 무의식 속에 잠재된 욕망이나 불안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성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고립되어 보인다. 이는 현대인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개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고독감과 싸움을 상징하기도 한다. 결국 마그리트는 '피레네의 성'이라는 제목 자체가 프랑스 속담으로 '허공에 쌓은 성'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꿈이나 이상을 상징하며, 인간의 욕망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다.

23) renemagritte, 'The Castle of the Pyrenees', (2025.04.05.) <https://www.renemagritte.org/the-castle-of-the-pyrenees.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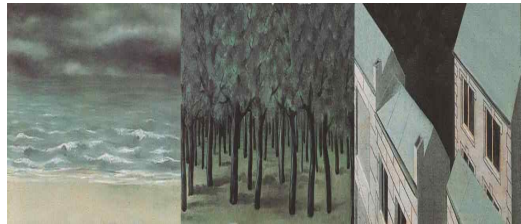
[그림 5] Popular panorama(1926)²⁴⁾

〈통속적인 파노라마〉는 각각 다른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5]. 그러나 보통 풍경, 즉 통속적인 풍경은 이 풍경의 3개의 요소(해변, 숲, 주택지)는 수직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수평 방향으로 나란히 존재한다. 제목도 역시 반어적이다. 이 파노라마는 절대적으로 통속적일 수 없다.

만약, 이 3개의 풍경이 수평으로 병렬된 이미지였다 고 하면 통속적 파노라마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현실 세계에서 상투적인 사물의 수직과 수평적 구조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뒤집어 수평에서 수직으로 사고를 전환하여,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드러내고 있다.

[그림 5]의 작품이 통속적인 파노라마가 되기 위해서는 수평의 3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진 [그림 6]의 그림처럼 수평적으로 나열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깨뜨리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우리의 고정관념을 흔든다. 마그리트는 이러한 기법을 통해 관객들에게 익숙한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우리가 평소 의식하지 못했던 무의식의 세계를 탐험하도록 유도한다. 마그리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무의식은 단순한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내면에 숨겨진 고정관념과 상식에 대한 의문을 표현한 것이다.

그는, 작품 속에서 평범한 풍경 속에 등장하는 비현실적인 요소들은 우리의 삶 속에 숨겨진, 진실이라고 믿는 상식에 대한 의문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림 속의 각각의 요소들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관람자 개인의 경험과 무의식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마그리트는 특정한 사물이나 이미지를 통해 복잡한 개념이나 감정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상징과 은유를 자주 사용했다.



[그림 6] A common landscape arranged horizontally

3-3. M. C. 에셔의 작품 분석

M. C. 에셔(Maurits Cornelis Esche; 1898~1972)의 대표작인 〈8개의 머리〉는 에셔가 28세라는 젊은 시기의 작품으로, 그 후의 작품의 모체가 되었다. 10 수년이 지나 처음 에셔는 자신이 우연히 만들어 낸 이 작품에 규칙성을 발견하고 무한 반복의 이미지를 창조하게 되었다. 이 작품은 초기에도 불구하고 에셔의 평행이동 이론과 명암의 대조를 이용한 완벽한 테셀레이션에 의한 형태가 표현되고 있는 작품이다.

에셔의 초기 작품에도 간혹 착시나 왜곡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요소는 중, 후기의 작품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초기 작품에서는 특히 이 그림만이 에셔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 작품에는 상하가 뒤집어진 얼굴이 번갈아 그려져 있고, 8개의 머리는 서로 4개씩 상하를 향하고 있다. 인물의 머리, 의복, 얼굴의 윤곽 등으로부터, 거꾸로 된 화상과의 외곽 형태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결합하는 테셀레이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상하좌우 4번째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완전히 최초의 것과 일치하도록, 평면의 규칙적인 분할 방법인 평행 이동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이것은, 작품을 연결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확장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패턴이나 무늬처럼 무한한 크기로 이미지를 연결해 나갈 수 있다.

24) renemagritte, 'Popular Panorama', (2025.04.05.)
<https://www.renemagritte.org/popular-panorama.js>
 p



[그림 7] Eight Heads(1922)²⁵⁾



[그림 8] Part of "Eight Heads"

[그림 7]의 <8개의 머리>에 나타난 기하학적 구성과 시각적 착시를 통해 초현실적 세계를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인물의 얼굴이 한데 얹히고 서로 연결된 독특한 작품으로, 무의식 속의 복잡성과 인간의 내면을 암시하는 상징적 요소를 담고 있다. 이 작품에서 각 얼굴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종과 성별의 경계가 흐려져 있는데, 이는 개인의 정체성이나 자아가 상호작용하고, 한 인간의 내면에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이 공존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인간이 가진 다양한 모습을 무의식 속에서 자유롭게 탐구하고 드러내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복 패턴과 연속적 구성을 통해, 여서는 우리의 인식과 자아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타인과 연결될 수 있음을 암시하며, 개인의 무의식 속에 감춰진 다양성이 표출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5) Wikiart, 'Eight Heads, M.C. Escher', (2025.04.07.)
<https://www.wikiart.org/en/m-c-escher/eight-heads>

[그림 8]의 <정물과 가로>는 현실의 시각이 가진 규칙을 부수고 새로운 규칙을 세우고 판화로 제작했기 때문에 발휘할 수 있는 기술적인 표현과 사고를 엿볼 수 있다. 판화는 이미지의 색의 분할이 다른 매체에 비해 어렵기 때문에, 목판화나 인그레이빙(engraving)의 경우의 명암의 표현은, 선의 굵기나 선의 섬세함, 또는 선과 선의 간격에 의해 명암을 표현하게 된다. 이 경우, 질감을 생각하지 않고 표현하면, 각도가 같은 곳에서, 같은 양의 빛을 받는 면은, 단색판인 경우, 동일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

테이블과 거리의 시각적 표현은 목판 인그레이빙 기법의 특성상 같은 각도의 평면이기 때문에 동일한 표현으로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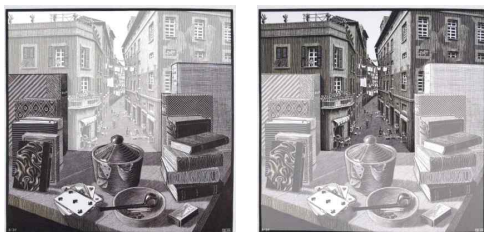
이것은 목판 인그레이빙의 치명적인 표현상의 단점, 한계이지만, 여서는 이것을 반대로 이용하여 형태의 왜곡과 합성의 도구로써 사용했다. 유사한 시각 요소를 집단으로 보려는 유사성을 이용한 것인데, 테이블과 도로의 표현이 동일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리고 책과 건물의 형태적 유사성을 이용하여 근경의 테이블과 원경의 거리를 이질감 없이 이어지게 했다.

정물이 놓여 있는 공간의 높이는 창밖에 보이는 건물의 소실점을 근거로 추측해 보면 2층의 발코니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 거리와 높이의 차이를 단순히 창문을 생략하고 노상의 지면과 테이블의 표현이 동일하다는 연결성을 이용하여 시각적인 오류를 알아채기 어렵게,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는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여서는 보다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의 그림자까지도 이용하고 있다.

그림자는 원경과 근경의 차이에서 오는 오류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이로써 근경과 원경을 대, 소, 1층과 2층이라는 하나의 평면으로는 공존할 수 없는 대립적인 개체를 동일한 평면에 자연스럽게 연결해 냈다.



[그림 9] Still life and landscape(1937)²⁶⁾



[그림 10] Foreground and background in Still Life and Landscape

[그림 9]의 <정물과 가로>에 나타난 무의식의 세계를 분석해 보면 이 작품은 하나하나로서는 평범한, 근경의 정물화와 원경의 풍경화를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하여 초현실적이고 무의식적인 상상력을 드러내는 독특한 작품이다. 정물에 등장하는 책더미와 그 위에 올려진 화병이 현실의 일상적인 사물처럼 보이지만, 화병과 책이 놓인 테이블의 끝이 이어지며 마치 꿈속처럼 거리 풍경으로 연결된다. 이로써 현실과 초현실이 겹친 독특한 풍경이 만든다.

에서는 이 작품에서 사물과 공간의 경계가 모호하게 연결된 장면을 통해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한다. 정물과 거리의 기이한 조합은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공간을 보여주며, 마치 현실과 꿈이 한 장면에 공존하는 듯한 효과를 주며, 인간이 일상 속에서 잠재적으로 느끼는 무의식적인 경험이나 인식, 그리고 자아가 여러

차원으로 나뉘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 작품에서 여서는 우리의 인식이 눈에 보이는 대로만 형성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연결된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초현실주의라는 20세기 예술사적 흐름 속에서 대표적인 작가인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í),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 M. C. 에셔(Maurits Cornelis Escher)의 예술 세계를 중심으로 그들의 작품이 지닌 초현실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의 예술이 어떻게 초현실주의의 철학과 정신을 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게슈탈트 심리학의 지각 원리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초현실주의(Surrealism)는 무의식, 꿈, 잠재의식과 같은 인간 내면의 비합리적 세계를 탐구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려는 예술적 시도로서 기존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복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살바도르 달리, 르네 마그리트, M. C. 에셔가 구사한 초현실주의 표현기법은 게슈탈트 심리학의 지각 원리와 결합되어 감상자의 시각적 인식에 독특한 영향을 미친다. 이들의 작품은 감상자가 단일하고 명료한 해석을 내리는 대신 다층적이고 비논리적인 지각적 체험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현대 시각예술의 본질적인 특성인 다의성과 해석의 개방성을 실현한다.

우선, 달리는 이중 이미지(double image) 기법을 활용하여 한 화면 안에 복수의 형태와 의미를 중첩시킴으로써 게슈탈트 이론의 폐쇄성(closure)과 유사성(similarity) 원리를 교묘하게 적용했다. 그의 작품은 감상자가 불완전한 형태를 자동적으로 보완하여 완전한 의미를 형성하게끔 유도하며, 이를 통해 시각적 착시와 환영을 효과적으로 창조한다. 예컨대 작품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자는 여자, 말, 사자>에서 다양한 이미지가 서로 겹쳐질 때 감상자는 본능적으로 의미 있는 전체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는 인간이 불완전한 정보에서 질서를 창조하려는 게슈탈트의 시지각 원리를 적극 활용한 예술적 전략이다.

르네 마그리트는 데페이즈망(dépaysement)을 통해

26) Tallenge Store, 'Still Life And Street - Posters', (2025.04.07.)
<https://www.tallengestore.com/products/still-life-and-street-art-by-m-c-escher-posters>

일상적 사물을 낯선 맥락에 재배치함으로써 감상자의 시각을 지속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는 계슈탈트의 근접성(proximity)과 연속성(continuity) 원리를 사용하여, 친숙한 사물과 공간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결합시키면서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대표적인 작품인 <피레네의 성>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축 구조를 사실적으로 묘사해 감상자의 시각적 인지를 방해한다. 감상자는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자동적 인식을 멈추고, 존재하지 않는 환상적 공간을 받아들이는 모순적 경험을 하게 된다.

M. C. 에서는 수학적 논리와 시각적 환영을 결합한 기하학적 착시 작품을 통해 무한한 반복과 불가능한 구조를 구현하였다. 그의 작품에서 계슈탈트의 유사성과 근접성 원리는 복잡한 패턴을 명료하고 일관성 있게 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8개의 머리>나 <정물과 가로>와 같은 작품에서 에서는 명백히 모순된 공간을 정밀한 수학적 배열로 구성하여 감상자가 일상적 시각 인지의 한계를 넘어서는 환상적 공간을 경험하도록 유도한다.

이 세 작가의 작품은 공통적으로 계슈탈트 심리학의 시각 원리를 정교하게 결합하여 감상자가 고정된 인식을 벗어나도록 자극하고, 관람 과정에서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의미를 찾게 만든다. 이는 초현실주의가 추구한 무의식과 비합리성, 그리고 현대 예술에서 중요시되는 다의적이고 개방적인 해석을 촉진하는 핵심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시각, 인식, 무의식의 경계를 실험하면서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창출해냈으며, 이는 단지 미적 성취에 그치지 않고, 현대 미술 및 시각문화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계슈탈트 심리학의 시각 원리와 결합된 초현실주의 표현기법은 감상자로 하여금 단일한 해석을 유보하고 다층적이고 비논리적인 인식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점에서, 현대 시각예술의 본질적 특성 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초현실주의와 계슈탈트 심리학의 융합이 현대 시각문화 이해의 핵심적인 접근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달리, 마그리트, 에셔의 작품을 통해 무의식과 시각 원리의 결합이 감상자의 능동적인 해석을 촉진하고 다층적이고 개방적인 인지 경험을 창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대 예술에서 관객의 참여와 상호작용이 갈수록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계슈탈트 이론을 기반으로 한 예술적 전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향후 연구에서는 초

현실주의 표현기법이 현대 디지털 미술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창작에 미치는 영향력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슈탈트 심리학의 원리들이 다양한 매체와 인터랙티브 아트에서 어떻게 확장되고 변형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André Stanguennec, 『La Philosophie Romantique Allemande』, Un Philosophier Infini, Vrin, 2017
2. Bruce Altshuler, 'The Avant-Garde in Exhibition' New Art in the 20th Centu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p. 116
3. Cho, H. J.,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Everyday Mentalscapes Using the Automatism Effect',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Ph.D. Thesis, 2024
4. H. Read, 'Futurism, Dada, Surrealism', A Concise history of modern Painting, New York, Fredericka Prayer, Inc, 1964
5. Yoon, H. J. & Jeon, S. Y., 'A Study on the Paintings of Salvador Dali in the Paranoid Critical Method Period from a Psychoanalytic Perspective', Art Therapy Research 24(3), 2017, pp.631-651
6. Kim H. S., 'Eyes on Modern Art', Yeolhwadang, 1998
7. Kim S. E., 'The Uncanny of Common Images in Salvador Dali's Paintings and the Film Un Canine of Andalusia', Dongguk University, Institute of Visual Culture Contents, Visual Culture Contents Research, Vol.13. 2017, pp.53-173
8. Kim, Y. A. & Kim, N. H., 'Analysis of

- Marten Baas's art furniture through surrealist expression techniques and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objects', *Basic Design Studies*, 22(4), 2021, pp. 85-98
9. Kang Kyung-seok,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surrealist movement seen as a major exhibition from 1933-1938', *Compendium of art*, 25(0), 2024. pp.153-182
 10. Lee, J. H, 'The Development and Present of Surrealist Film Aesthetics: Focusing on Luis Buñuel', *Pusan National University Film Research Institute*, 9(2), 2017, pp.209-238
 11. Park, W. Y, 'A Comparative Analysis Study of the Works of Salvador Dali and René Magritte through the Expression of the Unconscious', *Art Psychotherapy Research*, 16(3), 2020, pp.67-95
 12. Peter Webb, 'The Erotic Art', New York Graphic Society, 1975
 13. Shin, K. S, 'Surrealism', Dong-A Publishing Company, 1992
 14. Song, J. S, 'The Form and Meaning of Surrealist Films as Seen Through Dali and Buñuel's Andalusian Dog', *French Culture and Arts Society*, Vol. 7, 2002, pp.161-174
 15. Gao, M. Y 'Study on the Expression of Depaysement in Surrealism', Daej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Ph.D. Thesis, 2024